

SK 텔레콤 017670

SK 텔레콤 박정호 사장, CES 발언 정리

●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098-6653
kw.eun@meritz.co.kr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CES 2019에서 중간지주사 전환 언급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 참가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올해는 꼭 중간지주사 전환을 하도록 하겠다"며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또 한번 공론화. 중간지주사 발언과 함께 SK하이닉스 추가 지분 취득에 대한 의지도 밝혔으며,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MNO(이동통신사업부)를 분할 후 재상장시켜 투자 받는 모델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옥수수(oksusu)' 비전 공유

이 날 박정호 사장은 SK텔레콤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옥수수(oksusu)에 대한 비전도 공유. SK텔레콤이 "콘텐츠 제작 역량은 약하나 플랫폼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방송 3사가 보유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내외 사업주들과 활발한 제휴로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방침. 한편, 옥수수(oksusu)와 포크(Pooq)의 통합은 1Q19 안에 마무리될 전망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 행위요건 강화 규정은 신규 설립 및 전환 지주회사에 국한.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즉 당장 중간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SK하이닉스(20.1% 보유)의 추가 지분 취득이 강제되지 않음. 다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

박정호 사장의 'MNO를 분할 후 재상장 시켜'라는 발언은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을 통해 중간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의미. 인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인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모두 상장되는 반면 물적분할의 경우 지주회사(가칭 SK 투모로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는 비상장 되는 구조이기 때문

전일 급등한 SK하이닉스 주가가 대변하듯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추가 지분 9.9%(약 4.6조원) 취득 방법에 집중될 전망. 매입 재원의 경우 CEO의 발언처럼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유동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으로 충당 가능. 단순 시장 매입 보다는 블록딜, 자사주 스왑, 공개 매수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 참고로 SK텔레콤을 제외한 SK하이닉스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9.1%, 더 캐피탈 그룹 6.8%, 블랙록 5.1% 순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1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1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1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